

자기고양편향이 행복감과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

백수경 고재홍⁺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자기평가와 같은 집단내 타인들의 그에 대한 평균평가간의 차이로 정의한 다음, 자기고양편향이 개인내적 측면인 행복감과 대인간 측면인 인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같은 반의 고등학생들을 동성 4인 집단으로 남학생 55집단과 여학생 51집단을 구성하였다. 각 집단성원들에게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자신과 집단내 타인들 각각을 성격 5요인에 근거한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자기고양보다는 자기겸양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주관적 행복감은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기평가 점수와 더 높게 관련된 반면, 인기도는 자기평가보다는 타인의 평가와 더 관련이 높았다. 셋째, 전반적인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인기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에서 자기고양편향이 클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원만성, 개방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인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외향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 모두와 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에는 긍정적 효과를, 인기도에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 양면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자기고양편향, 자기겸양편향, 행복감, 인기도, 성격평가

사회지각에 관한 최근 연구들의 주요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 혹은 자신과 관련된 여러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이다(Alicke, 1985). 사회지각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결과는 일반인들의 사회지각에는 많은 왜곡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각의 왜곡은 지각자 자신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 부른다(Taylor & Brown, 1988 참조). 긍정적 착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각왜곡은 자신이 외계를 타인들보다 더 잘 통

제할 수 있다고 믿는 통제착각(illusions of control), 자신의 미래를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 그리고 자신을 타인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자기고양편향(self-enhancement bias)이다. 이들 긍정적 착각은 모두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로부터 나온다(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88).

긍정적 착각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자기고양편향이다. 실제로 미국 교수들 중 94%가 자신이 평균적인 교

* 본 논문은 2007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고재홍,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55) 249-2182,

E-mail : kopsy@kyungnam.ac.kr

수들보다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고(Cross, 1977),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자신이 거짓말을 할 확률보다 3배 정도 높다고 믿으며(Rosenblatt, 1993), 호주의 직장인들 중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1%에 불과하였다(Headey & Wearing, 1987). 심지어 암과 같은 심한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이 같은 병을 가진 다른 환자들과 비교할 때도 평균적인 타인들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파를 보였다(Bunk, Collins, Taylor, & Van Yperen, 1990; Helgeson & Taylor, 1993; Taylor, Kemney, Reed, & Aspinwall, 1991). 즉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빨리 병을 나을 수 있으며,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 연구들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높이려는 자기고양 동기는 사람들의 지각과정(Erdelyi, 1974), 기억과정(Greenwald & Pratkanis, 1984), 그리고 귀인과정(Miller & Ross, 1975) 등 다양한 판단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 정보를 부정적 성격 정보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회상도 더 잘 하였다(Kuiper, Olinger, MacDonald, & Shaw, 1985), 사람들은 자신을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그 당시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며(Crary, 1966),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언급한 것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Alicke, 1985).

자기고양편향이 나타나는 영역

사람들은 모든 평가 영역에서 자기고양편향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일부의 연구들에서 자기고양편향이 모든 평가측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Tesser, Campbell 및 Smith (1984)에 따르면 자신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영역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친구들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자기고양편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Swann과 Pelham(1989)은 차별적 중요성(differential importanc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차별적 중요성 지표는 자기평가 평정과 평가 영역의 중요성 평정간의 상관이다. 그러므로 차별적 중요

성 지표가 +값으로 높다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일수록 자신을 우수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안신호와 박미영(2005)도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영역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포함되어야 하며, 자존감과 관계에서 평가뿐 아니라 평가의 수용여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5요인 성격차원에서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비교한 고재홍과 전병우(2003)의 연구에서도 성격 5요인 중 상대적으로 외향성과 호감성에서 자기고양편향이 크게 나타났다.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Kenny(1994)에 따르면, 정서적 안정성에서는 자기검양이 나타난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났다. 또한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특성(예 : 학생을 사랑한다)과 부정적 특성(예 : 복종적이다)으로 구분하여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비교한 공영숙과 고재홍(2004)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전체 영역에서 자기고양편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특성보다는 부정적 특성에서 자기고양편향이 크게 나타났다. 즉 자신이 긍정적 특성에서 남들보다 우수하기 보다는 부정적 특성이 남들보다 더 적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긍정적 특성에서는 애매한 측면에서 자기고양편향이 크게 나타났고, 부정적 특성에서는 오히려 분명한 측면에서 자기고양이 더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사들은 긍정적 특성이라도 사실여부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측면(예 : 교과지도를 잘한다)에서보다는 사실여부의 확인이 애매한 측면(예 : 학생을 사랑한다)에서 자신을 평균적인 다른 교사들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자기고양편향을 평균적인 타인들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편향(better-than-average effect)으로 정의한 연구들에서는 비교대상인 타인의 특성에 따라 자기고양편향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연구들에 따르면 비교대상 타인이 일반적인 타인인 경우에서 자기고양편향이 두드러지고, 타인이 가까운 친구인 경우는 그 크기가 작거나 역전되어 나타났다(Kenny, 1994; Klar, Medding, & Sarel, 1996; Suls, Lemos, & Stewart, 2002).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Takata(2003)의 연구에서도 일본인들은 자신과 친밀관계인 타인보다는 친밀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경쟁상황에서 자기고양편향을 보여주었다.

자기고양편향이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

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전반적인 자기고양편향보다는 특정영역이나 차원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 중 어떤 차원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이 개인의 행복감과 인기도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고양편향의 효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현실을 객관적이고 왜곡 없이,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이전의 생각들(예 : Johoda, 1958)은 현재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오히려 자신과 관련된 현실을 긍정적으로 잘못 지각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기고양편향이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성취영역에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 Sternberg & Kolligan, 1990). 자신을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yd-Wilson, McClure, & Walkey, 2004). 심지어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 중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며, 더 건강하다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건강위험의 스트레스가 적었고, 자신과 유사한 환자들보다 더 건강하였다(Helgeson & Taylor, 1993). 특히 이러한 긍정적 자기지각은 초기 아동기의 언어능력 획득, 문제해결의 발달 및 운동기능을 촉진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편향은 지각 오류이지만, 자존심의 향상이나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기고양편향이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각자의 심리적 행복감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은 Seligman과 Chikzentmihalyi(2000)이 주창한 긍정적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에게 주목받는 개념이 되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적대적인 상황이나 힘든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눈에 띄게 행복해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상을 낙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밝게 전망하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Freedman, 1978;

Myers & Diener, 1995; Taylor & Brown, 1988). 반대로 최고의 순간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불평하며, 모든 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 일의 부정적 측면만을 언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Lyubomirsky, Kasri, & Zehm, 2000). 많은 연구들(예 : Myers & Diener, 1995)은 이러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편향도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기고양편향이 자신에게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고양편향은 자기애(narcissistic personality)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John & Robins, 1994). 실제로 자기고양의 크기는 자애적 성격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고양편향이 자기애척도의 하위요인인 권력추구 및 자기찬미와 중첩되기 때문이다(Emmons, 1984). 자기애와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자기애 성격을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자애적 성격 소유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자존감이 낮고 타인에게 의존적이었다(Kernis, 2001).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이 많으며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고(Davidov & Morf, 2004), 공격적이었다(Stucke & Sporer, 2002). 특히 자애적 성향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손상을 줄 수 있는데 자애적 성향자는 거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대한 착취성, 과시행동을 보이며, 이상적 타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애적 욕구를 충족하려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피상적이고, 친밀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Patalano, 1997). 현실에서도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호감도가 낮고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John & Robin, 1994). Robin과 Beer(2001)는 자기고양편향은 단기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자기고양적인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 자기고양적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관찰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토론에 함께 참가한 사람들은 자기고양적인 사람을 긍정적

으로 평가한 반면, 토론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장면을 보는 관찰자는 자기고양적인 사람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Campbell & Fehr, 1990; Colvin, Block, & Funder, 1995).

특정인의 대인관계 질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 중의 하나가 그의 집단내 인기도이다. 인기도(또래지위, peer status) 혹은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내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관계에 기초하며, 또래집단 내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말한다(Hartup, 1978). 한편 개인의 집단내 인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회측정법(sociometry)이다. 이는 집단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선호나 호감 또는 배척의 정도를 동료들에게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회측정법은 집단성원들에게 같은 집단내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 혹은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동료들을 지명 또는 평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지명빈도가 높은 사람들을 인기인으로, 지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비인기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방법을 변형하여 긍정적인 거명과 부정적인 거명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Coie & Dodge, 1983; Coie, Dodge, & Coppotelli, 1982). 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싫어하는’과 같은 문장에 해당하는 집단성원의 이름을 1-3 명씩 적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Coie 등(1982)은 사회측정 지위를 인기인, 논쟁거리인 사람, 보통인, 무시되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기타 범주’로 취급하였다.

인기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집단성원들에게 특정인에 대한 전반적 호감 정도를 묻는 것이다. 즉 집단성원들이 평정한 평균 호감이 클수록 그 사람의 인기도가 높은 것이다. Coie 등의 방법은 많은 사람이 ‘기타’ 범주에 속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이 방법은 모든 구성원들을 예외 없이 한 차원(인기있다 - 인기없다)에서 나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고양편향의 측정문제

자기고양편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속성에 대해 평가자가 자신을 평가한 값(자기평가)과 타인들을 평가한 값(타인평가)을 비교하여, 자기평가 값이 타인평가 값보다 큰 경우는 자기고양편향

이며 자기평가 값이 타인평가 값보다 작은 경우를 자기겸양(self-abasement)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enny(1994)는 자기고양편향을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p.183)”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통사람들보다 더 낫다(better-than-average)고 평가하는 정도로서, 자신을 일반적인 타인들보다 긍정적 속성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 속성에서는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사회심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비교에 의한 편향으로 해석한 정의이다.

둘째, 자기고양편향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어떤 속성에 대한 자기평가 값과 자신의 실제 값을 비교하여 자신의 실제 값보다 자신을 더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자기고양편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aylor와 Brown(1988)은 자기고양편향을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이 보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는 것(pp. 195-196)”이라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행동을 그 당시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며(Crary, 1966),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언급한 것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Alicke, 1985). 자신의 평가가 타인의 평가보다 실제로 높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평균적인 타인들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일종의 착각이다. 즉 논리적으로 볼 때 특정 평가속성의 분포가 부적 편포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한(다시 말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보다 더 우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느낌을 얻기 위한 편향으로 볼 수 있다(John & Robins, 1994).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기고양편향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두 자기고양편향지표 간에는 높은 상관(예 : .58)을 지니고 있기 때문(Kwan, John, Kenny, & Bond, 2004)에 두 자기고양편향 지표 간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예 : 안신호, 박미영, 2005)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비교에 의한 편향으로 자기고양편향을 해석하면 모순점이 발견된다. 즉 집단전체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기

1)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한 자기고양편향 측정치 간의 상관이 .6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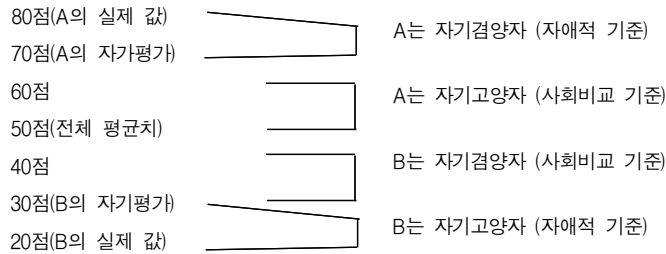


그림 1. A와 B의 실제평가,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에 따른 자기고양과 자기겸양 예

고양 “편향”이 분명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평균적인 타인보다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고양자라고 할 수는 없다(그림 1 참조).

예를 들어 A는 실제 값이 80점, 자기평가 값이 70점이고, 평균적인 타인들을 50정도로 평가하였다고 생각해 보자. 반면 B는 실제 값이 20점, 자기평가 값이 30점이고, 평균적인 타인들을 50정도로 평가하였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사회비교 기준에 의하면 A는 자기고양자인 반면, 자애적 기준에 의하면 A는 자기겸양자이다. 한편 B는 사회비교 기준에 의하면 자기겸양자이고 자애적 기준에 의하면 자기고양자이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구분이 역전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사회비교 기준에 따르면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크기 속에는 “실제로 더 나은” 부분과 “더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편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자체를 자기고양의 크기로 볼 수 없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애적 기준에 의한 정의를 사용하여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애적 기준으로 자기고양편향을 정의하는 데 있어 최대의 문제점은 “실제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이다. 평가에서 “실제 값”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이 준거가 되어 평가의 정확성(accuracy) 문제는 평가와 준거 사이의 일치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Kruglanski, 1989). 그러므로 모든 판단의 정확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판단을 무엇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따지는지에 대한 준거 설정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평가자들이 특정인의 ‘성실성’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처럼 성격과 같은 심리적 속성의 평가에 대한 정확성에서 객관적 준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부 연구자들(예 : Jones, 1985)은 대인지각(판단)의

경우, 적절한 준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정확성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치들을 준거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자기보고이다. 이는 성격평가와 같은 연구에서 준거를 구하기 위해 표적에게 자신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특정 특징(예 : 외향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를 직접 묻는 것이다. 일부 반론이 있으나 실제로 대인지각의 정확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자기보고를 준거로 사용하고 있다(예 : Kenny & Winqvist, 2001). 둘째, 전문가의 판단이다. 전문가란 표적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되는 표적의 친한 친구, 부모, 담당의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학교장면이나 발달연구에서는 종종 표적학생들을 잘 안다고 생각되는 교사의 그 학생에 대한 판단이 준거로 사용된다(예 : Malloy & Yaras, 1996). 셋째, 여러 사람이 내린 판단의 평균(mean judgment)이다. Kenny(1987)는 성격지각에서 ‘준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인간관찰자로 보고 표적의 가능한 모든 행동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보고 내리는 평균판단을 정확성의 준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적대상이 ‘망상증환자일 가능성’에 대한 임상가의 판단정확성에 대한 준거로서 MMPI 검사의 L점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행동관찰이다. 평가자가 아닌 제 3의 관찰자가 직접 표적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준거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Kenny(1994)는 대인지각에서 어떤 속성에 대한 특정인의 실제 평가치는 그를 잘 아는 다수의 타인들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성격 속성에 대해 평가자 자신이 자신을 평가한 값이 다수의 타인들이 그를 평가한 값보다 호의적

인 경우를 자기 고양편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다수의 평가를 표적인물에 대한 실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자애적 기준을 사용하여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들의 전반적인 성격평가를 사용하여 자기평가와 여러 사람이 내린 판단의 평균의 차로 '실제 값'을 구하여, 그 값이 +인 경우를 자기고양편향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자기고양편향 효과의 준거로서 자존감이나 안녕감과 같은 개인내적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자기애를 다룬 연구들에서 자기에 성격이 그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고양편향의 부정적 효과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평가 지표인 대인 관계나 사회적 측면에서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속성에 대한 자기평가 값과 자신의 실제 값을 비교하여 자신의 실제 값보다 자신을 더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자기고양의 크기로 보고, 이러한 자기고양이 각기 다른 측면에서 각기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즉, 개인내적 심리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는 긍정적 효과를, 대인간 측면인 집단 내 동료들로부터의 인기도(호감)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자기고양편향의 양면적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자기평가보다는 타인에 의한 사회적 평가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평가보다는 타인의 평가가 인기도뿐만 아니라 행복감에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Suh, Diener, & Updegraff, 2006;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에서 재인용). 둘째, 자기고양편향 크기(자기평가 - 타인들의 평가)는 주관적 행복감에는 정적인 관계를, 인기도와는 부적 관계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자기고양편향 값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영역(예: 능력)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을 측정하는 경우(예: 정육, 한규석, 2005)도 있고, 전반적 영역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Kenny, 1994 참조). 본 연구에서는 사람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위해 5요인 성격척도의 문항들을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5가지 평가영역 중 어떤 하위영역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의 크기가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에 소재하는 4개 고등학교(남고 1개교, 여고 1개교, 공학 2개교) 2학년 학생 중 같은 반의 4명의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55집단, 같은 반의 4명의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51집단 등 총 106집단의 424명이었다.

주관적 행복감 척도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예: '또래 친구들에 비해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의 Likert 형태의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문항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86 이었으며, 3주에서 1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였다. 본 연구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78이었다.

자기평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위해 5요인 성격이론에 근거한 서은국과 최인철(2005)의 한국형 5요인 척도의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BFI(Big-Five Inventory; John, Donahue, & Kentle, 1991)를 참조한 것으로 이 척도는 문항 수는 적지만 NEO-FFI와 .68-.85의 비교적 상관성이 보고된 바 있다(Watson & Hubbard, 1996).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평가의 간편성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원만성, 개방성의 각 차원마다 5문항씩 모두 25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외향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들은 “나는 모임의 활력소이다”, “나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등이었다.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쉽게 짜증난다” 등이었다. 성실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 “나는 일을 대충한다” 등이었다. 원만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사람을 편하게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등이었다.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어떤 일을 늘 새로운 방법으로 해 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등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각 문항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된 7점 Likert 형태의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요인의 5문항 평균값이 클수록, 그 성향이 큰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5요인 성격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62~.79이었다.

타인평가

같은 집단내 타인들에 대한 평가는 자기평가에서 사용한 문항들에서 “나는 ~ ”에 해당하는 부분을 “A는 ~ ”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격특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 “나는 사람을 편하게 한다”의 경우, 타인(예 : A)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사용할 때는 “A는 사람을 편하게 한다”와 같이 바꾸어 사용하였다. 타인평가는 집단내 3명의 타구성원들 모두에 대해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

인기도

본 연구에서 특정인(예 : A)의 인기도는 그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호감 평균치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A의 또래지위는 다른 구성원들 B, C, D의 A에 대한 호감 평균값이며, 이것이 클수록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래 6문항으로 구성된 Byrne과 Nelson (1965)의 대인판단 척도(IJC : Interpersonal Judgement Scale) 중 인기도와 직접 관련된 2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각 구성원(예 : A)의 인기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문항들은 “나는 A를 좋아하는

다”, “A는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친구이다” 등이었다. 참여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문항의 평균값이 클수록 그의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대현(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α)는 .79이었다.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4인으로 구성된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과 나머지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평가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설계를 사용하였다. 이 설계는 Kenny(Kenny, 1994; Kenny & La Voie, 1984)가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같은 학급의 급우로서 평소 서로를 알고 있는 동성 학생들끼리 무작위로 한 집단을 4명씩으로 구성하였다. 방과 후 이들이 4인 집단으로 연구 장소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이들에게 A, B, C, D의 명찰 중 무작위로 하나를 각각 가슴에 달도록 한 다음,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원형으로 구성된 좌석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 조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요령, 익명성 보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평가 순서는 먼저 자신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평가하도록 한 다음, 5요인 성격평가 문항들에 대해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 집단의 다른 3명의 동료들 각각을 차례로 성격평가 문항들과 인기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참가자들은 설문지에 각자에게 배정된 기호인 A, B, C, D 중 하나로 작성자 명을 대신한 후, 설문지 묶음의 순서대로 자기평가를 위한 설문지에 먼저 답하고, 자신이 나머지 3명의 다른 구성원들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A는 자기평가 후 B, C, D에 관한 평가를, B는 자기평가 후 A, C, D에 관한 평가를, C는 자기평가 후 A, B, D에 관한 평가를, D는 자기평가 후 A, B, C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첫 단계에서 참가자들의 명찰을 무작위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평가자의 평가순서는 통제하지 않았다.

결 과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특정인(예 : A)의 실제평가 점수는 같은 집단에서 그를 제외한 타인들(예 : B, C, D)이 그(A)를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다. 예를 들어 B가 A의 성실성을 2, C가 A의 성실성을 3, D가 A의 성실성을 4로 평가한 경우, A의 실제 성실성 점수는 3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방법으로 5요인에 대해 참가자의 자기평가와 실제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먼저 5요인 전체의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자신(예 : A)의 5가지 성격 영역에 대한 모든 자기평가 평균에서 타인들(예 : B, C, D)의 그(A)에 대한 5가지 성격 영역에 대한 모든 평가치 평균을 공제하였다. 이 값이 +인 경우는 자기평가가 타인의 평가보다 더 긍정적인 자기고양편향인 반면, 이 값이 -인 경우는 자기평가가 타인의 평가보다 부정적인 자기겸양(혹은 자기비하)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집단의 자기고양편향 평균은 -0.30(표준편차 0.78)으로서 참가자들은 전체적으로는 자기겸양적 경향성을 나타냈다, $t(423)=7.89, p<.01$. 부호에 근거한 비율에서도 자기고양자가 약 35%(남자 42%, 여자 28%)이었으며, 자기겸양자는 약 65%(남자 58%, 여자 72%)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학생($M=-0.14$)에 비해 여학생($M=-0.48$)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422)=4.52, p<.01$. 둘째, 같은 방식으로 5영역별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산출한 결과 영역별 자기고양편향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4, 1692)=92.04, p<.01$. 구체적으로는 정서적 안정성($M=-1.12$), 외향성($M=-0.26$), 성실성($M=-0.25$)의 순서로 오히려 자기겸양편향이 나타났으며, 각각 $t(423)=16.51, p<.01$; $t(423)=4.34, p<.01$; $t(423)=4.42, p<.01$, 개방성($M=-0.03$)에서는 어떤 편향도 나타나지 않았고, $t(423)=0.49, ns$, 원만성($M=0.16$)에서는 자기고양편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t(423)=3.01, p<.01$.

표 1. 남녀 참여자들의 자기평가, 타인평가 및 타인의 평가평균 (표준편차)

	자기평가	타인평가	타인의 평가
남자(n=220)	4.10(0.67)	4.24(0.49)	4.24(0.57)
여자(n=204)	4.11(0.75)	4.24(0.61)	4.24(0.59)
전체(N=424)	4.11(0.72)	4.41(0.58)	4.24(0.61)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 주관적 행복감 및 교우 간 인기도간의 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 학생의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가 개인 내적 요인인 주관적 행복감과 대인간 요인인 인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표 2 참조).

표 2.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 행복감 및 인기도간의 관계

	자기평가	타인의 평가	차이값	
행복감	남학생	.55*	.31*	.29*
	여학생	.52*	.24*	.31*
	전 체	.54*	.28*	.27*
인기도	남학생	.18*	.58*	-.29*
	여학생	.05	.65*	-.43*
	전 체	.11	.63*	-.39*

* $p<.01$ (양방향검증)

먼저 주관적 행복감은 자기평가가 높을수록($r=.54$), 타인의 평가가 높을수록($r=.28$) 높게 나타났다, $ps<.01$. 그러나 Steiger(1980)가 제안한 상관된 자료의 상관계수 차이검증 결과,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기평가와의 상관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21)=5.23, p<.01$. 동료로부터의 인기도는 자기평가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r=.11, ns$), 타인의 평가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422)=.63, p<.01$. 역시 상관계수의 차이검증에서도 인기도는 자기평가보다는 타인의 평가와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421)=12.85, p<.01$. 한편 자기평가에서 타인의 평가를 뺀 자기고양편향은 행복감과는 정적 상관을, 인기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각각 $r(422)=.27, r(422)=-.39, ps<.01$. 위의 표에서 보듯, 자기고양편향과 인기도 간의 관계는 남학생($r=-.29$)보다 여학생($r=-.43$)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Z=1.65, p<.10$.

2) Steigher(1980)의 제안에 따르면, 두 상관된 자료의 상관계수(r_{xy}, r_{yz})의 차이검증은 다음의 공식으로 가능하다.

$$t = \frac{(r_{xy} - r_{yz})\sqrt{(n-1)(1+r_{xz})}}{\sqrt{2\left(\frac{n-1}{n-3}\right)|R| + r^2(1-r_{xz})^3}}$$

$$|R| = 1 - r_{xy}^2 - r_{yz}^2 - r_{xz}^2 + 2r_{xy}r_{yz}r_{xz}$$

$$\bar{r} = \frac{r_{xy} + r_{yz}}{2}$$

$$df = n_1 - n_2 - 4$$

자기고양편향이 주관적 행복감과 교우 간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

자기고양편향이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의 차이로서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정의한 다음, 이를 예언 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때 1단계에서 응답자의 성을 통제한 다음에도 2단계에서 자기고양편향 크기가 주관적 행복감을 유의하게 예언해 주는지를 알아 본 결과, 자기고양편향이 클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ta=.30$, $p<.01$. 반면 자기고양편향이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역시 1단계에서 성차를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기고양편향이 높을수록 동료들로부터의 인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36$, $p<.01$. 결과적으로 자기고양편향 크기가 클수록, 개인내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은 높으나, 대인관계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동료들로부터의 인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자기고양편향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5요인 성격의 하위요인별 자기고양편향 중 어떤 요인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이 주관적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원만성, 개방성 각각에서의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예언 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1단계에서 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통제 한 후, 2단계에서는 5가지 하위요인들의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는 표준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3이다.

표 3에서 보듯,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평

표 3. 5성격 요인별 자기고양편향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단계		<i>b</i>	표준오차	β	<i>t</i>	<i>p</i>
1	성별	.17	.12	.07	1.46	.14
	외향성	.02	.05	.02	.43	.67
2	정서적 안정성	.17	.04	.20	4.05	.00
	성실성	-.02	.05	-.02	-.42	.68
	원만성	.09	.06	.08	1.54	.12
	개방성	.19	.05	.19	3.67	.00

가의 하위요인들의 자기고양편향 중 주관적 행복감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서적 안정성($\beta=.20$)과 개방성($\beta=.19$)인 것으로 나타났다, $ps<.01$. 즉 정서안정성과 개방성에서 자기고양편향이 클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향성($\beta=.02$)과 성실성($\beta=-.02$), 원만성($\beta=.08$)에서의 자기고양편향크기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남녀별 분석에서 남학생은 정서적 안정성($\beta=.30$)과 원만성($\beta=.15$)에서의 자기고양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큰 반면, 여학생은 개방성($\beta=.29$)에서의 자기고양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ps<.01$.

평가영역별 자기고양편향에 따른 인기도

5요인 성격의 하위요인별 자기고양편향 중 어느 요인들이 학생들의 동료로부터의 인기도에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5영역에서의 자기고양편향 크기로서 인기도를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는 5가지 하위요인들의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는 표준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4이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표 5에서 보듯, 외향성을 제외한 정서적 안정성($\beta=-.12$), 성실성($\beta=-.14$), 원만성($\beta=-.21$) 및 개방성($\beta=-.11$)에서 자기고양편향의 크기는 모두 인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s<.05$. 즉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원만성, 개방성에서 자기고양편향을 많이 보이는 학생일수록 학급 내 동료들로부터의 인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을 실제보다 더 원만한 사람으로 지각할수록, 동료 학생들로부터의 인기도에 가장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향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인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1$, *ns*. 남녀별 분석에서 남학생은 성실성($\beta=-.18$)과 원만성($\beta=-.19$)에서의 자기고양이 높을수록 인기도가 낮은 반면, 여학생은 정서적 안정성($\beta=-.23$)과 원만성($\beta=-.24$)에서의 자기고양이 높을수록 인기도는 낮았다, $ps<.01$.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결과적으로 자기고양편향의 하위요인들 중 외향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 모두와 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

표 4. 5성격 요인별 자기고양편향에 따른 인기도

단계		b	표준오차	β	t	p
1	성별	.48	.11	.20	4.24	.00
	외향성	.01	.05	.01	.12	.90
2	정서적 안정성	-.10	.04	-.12	-2.48	.01
	성실성	-.14	.05	-.14	-2.82	.01
	원만성	-.24	.06	-.21	-4.23	.00
	개방성	-.10	.05	-.11	-2.11	.04

타났으며, 정서적 안정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에는 긍정적 효과를, 인기도에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 양면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4인을 한 집단으로 구성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에 근거한 척도를 사용하여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자기평가와 타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자기를 타인에 의한 평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정도를 자기고양의 크기로 보고, 이러한 자기고양이 자기 다른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기평가, 타인의 평가 및 둘 간의 차이값(편향)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5요인에 따른 전반적인 자기고양편향 크기가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성격 5요인의 평가영역 중 어떤 하위영역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의 크기가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5요인 성격평가에서 나타난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기고양보다는 자기겸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자기고양보다는 자기겸양의 경향성이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관계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고양편향을 평균적 타인들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편향(better-than-average effect)으로 정의한 이전 연구에서도 비교대상인 타인들이 평소 자신이 잘 모르는 일반적인 타인인 경우에서 두드러지고, 비교대상인 타인들이 평가자 자신과 가까운

친구인 경우는 그 효과가 적거나 역전되어 나타났다(Klar, Medding, & Sarel, 1996; Suls, Lemons, & Stewart, 2002).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편향을 위와는 다르게 정의하였지만, 참여한 학생들이 약 1년간 서로 사귀는 급우들이기 때문에 자기고양편향보다는 자기겸양편향이 나타났을 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성원간의 친밀도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친밀도에 따라 자기고양편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³⁾.

두 번째 가능성은 서구와 우리의 문화나 사회적 가치에 따른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미국인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서양인에 비해 일본인과 같은 집합주의 문화권의 동양인들은 자기고양편향이 작거나 때로 자기를 낮추는 자기겸양(self-abasement) 편향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결과들(Heine & Lehman, 1997 참조)에 근거한 유추이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안녕감보다 집단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낮추고 남을 더 높여 집단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iki, 1997 참조).

실제로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에서 자기겸양 편향자가 15%인데 비해 자기고양 편향자는 약 30%로 2배의 비율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hn & Robin, 1994).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억제를 강조하여 자신의 정적 측면은 덜 드러내고, 부정 측면은 확고하고 수정함으로써 집단의 조화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조궁호, 1993). 그리고 동양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름없는 평균적인 존재이고, 어떤 특성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양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예 : 조궁호, 김소연, 1998). 최근 성격 5요인을 이용하여 자기고양편향효과를 다룬 고재홍과 전병우(2003)의 연구에서도 외향성을 제외한 4개 요인에서 모두 자기고양보다는 자기겸양편향이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혜경(2002)의 연구에서 16세 때의 자기와 대학생인 현

3) 집단성원들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나 친밀도를 통제 한 후,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한 심사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해당 자료가 없어 분석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재의 자기를 비교하였을 때도 지금의 자신이 그 이전의 자신보다 더 못하다고 느끼는 자기겸양편향이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최근 정욱과 한규석(2005)은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는 상황(예 : 실험상황)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도 자기고양편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자기고양편향은 초기 서구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문화, 개인의 동기, 측정방법 및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재홍, 전병우, 2003; 정욱, 한규석, 2005; Kurman, 2003).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자기겸양편향이 나타난 이유는 자기평가를 낮춘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타인평가를 높인 긍정성 편향(positivity bias)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자에게서 보다는 여자에게서 자기겸양편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남녀간 자기평가 크기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남자평균 4.10, 여자평균 4.11), 여자들(평균 4.59)이 남자들(평균 4.24)보다 타인평가가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처럼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타인평가에 호의적인 ‘여성긍정성 효과’(female positivity effect; Winquist, Mohr, & Kenny, 1998)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 같이 나타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자기고양크기가 자기평가와 높은 정적 상관($r=.68$)을 나타낸 점과 기존의 연구결과들(예; 조광호, 김소연, 1998)을 참조할 때 자기겸양편향으로 보인다(고재홍, 전병우, 2003 논의부분 참조).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집단동료들의 전반적 평가를 위해 5요인 성격척도의 문항들을 이용하여 자기고양편향 효과를 다루었다. 그러나 자기고양편향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성공의 귀인에서 나타나는 자기고양편향(이는 self-serving bias 라 부름)과 주로 능력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을 다루고 있다(예 : 정욱, 한규석, 2005).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도 자기보호편향(self-serving bias)과 능력면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전반적 성격평가를 이용한 연구들(예 : 고재홍, 전병우, 2003)에서는 자기겸양편향이 나타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전반적 성격평가로 자기고양편향을 측정할 서구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자기고양편향이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Kenny, 1994 참조).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성격측면이 아닌 귀인이나 능력측면에서 나타나는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인기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고양편향자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는 자기고양편향이 정신건강의 지표(예 : 자존감이나 안녕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감도가 낮고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에 성격(narcissistic personality) 소유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들(예 : John & Robin, 1994)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평가자들은 자기고양 편향자보다는 자기겸양 편향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광호, 김소연, 1998).

마지막으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성격평가의 하위요인별 자기고양편향이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에서 자기고양편향이 클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원만성, 개방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인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인기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성실성과 원만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인기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외향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 모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원만성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인기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별 분석에서는 주관적 행복감과 인기도에 영향을 주는 자기고양편향의 하위 영역이 약간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남녀간 결과차이에 대한 이유를 본 연구에서는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자기고양편향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자기고양편향을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이 보는 것보다 더 낮다고 보는 것”과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정의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어

면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구분이 역전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고양편향이 미치는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들의 전반적인 성격평가를 하여 자기 평가와 여러 사람이 내린 판단의 평균의 차로 '실제 값'을 구하여, +인 경우를 자기고양편향으로 정의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대인지각이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실제 값'의 타당한 준거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예: Kruglanski, 1989)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정인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 평균치가 실제로 그의 '실제 값' 인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특정인의 평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준거가 확보되는 상황(예: 실험과제 수행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정확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 중 어떤 연구는 긍정적 효과(예: 고재홍, 전병우, 2003; Taylor et al., 1991)를 어떤 연구는 부정적 효과(예: Colvin et al., 1995; Robin & Beer, 2001)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자기고양편향이 개인 내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는 긍정적 효과를, 대인 관계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인기도에는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입증하여 자기고양편향이 양면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어떤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편향이 긍정적 효과를 주며,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자기고양편향이 정신건강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Asendorpf & Setendorf, 1998 참조). 본 연구결과는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다룰 때, 평가측면이나 상황이 조절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 전병우 (2003). 두 자기평가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16.
- 공영숙, 고재홍 (2004). 교사의 자기고양편향과 자기향상감이 교직원족도 및 교직원몰입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경남대 교육대학원 편)*, 11, 5-30.
-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61-70.
- 박혜경 (2002). 시간에 걸친 사람의 변화 평가에서 나타나는 자기고양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국, 최인철 (2005). 빅-5 성격검사. *미출간 논문*. 서울대학교.
-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09-140.
- 정대현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동료의 성격특성 및 능력이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 욱,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의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99-216.
- 조궁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궁호, 김소연 (1998). 겸양편향자의 선호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Alicke, M. D.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 Asendorpf, J. B., & Ostendorf, F. (1998). Is self-enhancement healthy? Conceptual, psychometric,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955-966.
- Bogart, L. M., Benotsch, E. G., & Pavlovic, J. D. (2004). Feeling superior but no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35-44.
- Boyd-Wilson, B., McClure, J., & Walkey, F. (2004). Are wellbeing and illusory perceptions linked? The answer may be yes, but.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6, 1-9.
- Buunk, B. P., Collins, R. L., Taylor, S. E., & Van Yperen, N. W. G. A. (1990).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has its ups and downs. *Journal of Personality Psychology*, 59, 1238-1249.
- Byrne, D., & Nelson, D. (1965). Attraction as a linear

- function of proportion of positive reinforc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659-663.
- Campbell, J. D., & Fehr, B. A.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22-133.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3), 261-281.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tatus :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 Crary, W. G. (1966). Reactions to incongruent self-experienc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 246-252.
- Cross, P. (1977). Not can but will college teachers be improved?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7, 1-15.
- Davidov, M., & Morf, C. C. (2004).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 Putting away the ones we need*.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Toronto.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rdelyi, M. H. (1974). A new look at the new look : Perceptual defence and vigilance. *Psychological Review*, 81, 1-25.
- Freedman, J. (1978). *Happy people : What happiness is, who has it, and why*. NY : Harcourt Brace Jovanoich.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3.
- Greenwald, A.,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3, pp. 129-178). Hillsdale, NJ : Erlbaum.
- Hartup, W. W. (1978). Children and their friends. In H. McGurk(Ed.), *Issues in childhood social development*(pp. 170-192). London : Methuen.
- Headey, B., & Wearing, A. (1987). The sense of relative superiority-central to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497-516.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elgeson, V. S., & Taylor, S. E. (1993). Social comparisons and adjustment among cardiac par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171-1195.
- John, D. P., Donahue, E. M., & Kentle, R. L. (1991). *The Big Five Inventory-Version 4a and 54*. Technical Report,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Personality and Social Research, Berkeley.
- John, O. P., & Robin,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Johoda, M. (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Y : Basic Books.
- Jones, E. E. (1985). Major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Vol. 1, pp. 47-107). NY : Random House.
- Kenny, D. A. (1987). Accuracy in interpersonal perception : A Social relations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2, 390-402.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NY : Guilford.
- Kenny, D. A., & La Voie, L. (1984). The social relations model. In L. Berkowitz(Ed.), *Advances experimental*

- social psychology*(Vol. 18, pp. 142-182). Orlando, FL : Academic Press.
- Kenny, D. A., & Winkquist, L. (2001).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 Design, components, and unit of analysis. In J. Hall & F. Bernieri(Eds.), *Interpersonal sensitivity :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NJ : Erlbaum.
- Kernis, M. H. (2001). Following the trail from narcissism to fragile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2, 223-225.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 Norasakkuniki,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lar, Y., Medding, A., & Sarel, D. (1996). Nonunique vulnerability : Singular versus distributional probabilities and unrealistic optimism in comparative risk judgmen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7, 229-245.
- Kruglanski, A. W. (1989). The psychology of being 'right' : The problem of accuracy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395-409.
- Kuiper, N. A., Olinger, L. J., MacDonald, M. R., & Shaw, B. F. (1985). Self-schema processing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ntent : The effects of vulnerability on depression. *Social Cognition*, 3, 77-93.
- Kurman, J. (2003). Why is self-enhancement low in certain collective culture? : An investigation of two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496-510.
- Kwan, V. S., John, O. P., Kenny, D. A., & Bond, M. H. (2004). Reconceptualiz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bias : An interpersonal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11, 94-110.
- Lyubomirsky, S., Kasri, F., & Zehm, K. (2000). *Hedonic casualties of self-reflection*.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alloy, T. E., & Yarlas, A. (1996). Interpersonal perception in a soci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19-428.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attribution of causality :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Moreno, J. L. (1934). *Who shall survive?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interrelations*. Washington, DC :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shing.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talano, F. (1997).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80, 289-290.
- Robin,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 about the self : Short-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40-352.
- Rosenblatt, R. (1993). The 11th commandment. *Family Circle*, 25, 30-32.
- Seligman, M., & Ch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teiger, J. H. (1980). Test for comparing elements of a correlation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87, 245-251.
- Sternberg, R. J., & Kolligan, J. (1990). *Competence considered*. CT : Yale University Press.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toward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09-532.
- Suh, E. M., Diener, E., & Updegraff (2006). *From culture*

- to priming conditions : How self-construal influences life satisfaction judgments.* Manuscript under review.
- Suls, J., Lemons, K., & Stewart, H. L. (2002). Self-esteem, construal, and comparisons with the self, friends, and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52-262.
- Swann, W. B., & Pelham, B. W.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Takata, T. (2003). Self-enhancement and self-criticism in Japanese culture :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42-551.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Kemeny, M. E., Reed, G. M., & Aspinwall, L. G. (1991). Assault on the self : Positive illusions and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In G. A. Goethals & J. A. Strauss(Eds.), *The self :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pp.239-254). NY : Springer-Verlag.
- Tesser, A., Campbell, J., & Smith, M. (1984). Friendship choice and performance : Self-evaluation maintenance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61-574.
- Watson, D., & Hubbard, B. (1996). Adaptational style and dispositional structure : Coping in the context of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64, 737-774.
- Winqvist, L. A., Mohr, C. D., & Kenny, D. A. (1998). The female positivity effect in the perception of othe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370-388.

The Relations Among Self-enhancement, Subjective Happiness, and Peer Status

Sookyung Baek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enhancement bias on intrapsychic and interpersonal aspects. Divided into 55 male and 51 female groups each of which comprised 4 classmates of the same sex, a total of 424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se subjects assessed themselves and others in his or her group on Big-five personality items. This research defined the index of self-enhancement bias as a value that subtracts others' average assessment from one's own assessment.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generally displayed self-abasement rather than self-enhancement. Second, subjective happiness was related to one's own assessment more than others' assessment whereas one's peer status was associated more with others' assessment than one's own assessment. Third, the overall self-enhancement bias turned out to exert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but a negative effect on peer status. In terms of emotional stability and openness, finally, the more biased toward self-enhancement the subjects were, the more subjective happiness they showed. Meanwhile, self-enhancement bias was shown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peer status in regard to emotional stability,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and openness. Namely, the self-enhancement bias in extroversion was less likely to be related to both subjective happiness and peer status while regarding emotional stability and openness, it was shown to have the dual function of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and a negative effect on peer status.

Keywords : self-enhancement bias; self-abasement bias; subjective happiness; peer status; evaluation of personality

원고접수 : 2007년 1월 15일
심사통과 : 2007년 2월 2일